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문화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 문화 예산과 문화 활동(공연 횟수)을 중심으로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최보운

문화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산과 문화 활동(공연횟수)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상헌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3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최보운

최보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6 월

위 원 장 임도빈 (인)

부위원장 정광호 (인)

위 원 김상헌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문화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산과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공연 실적(횟수)가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행복도는 2013년 당해 연도 230개 시군구 각 자치단체 행복도를 조사한 2014 서울대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기존 문화 예산(재정)과 행복도의 관계, 문화 향유와 행복도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세분화해 실증 연구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를 선택한 것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행복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각 시도별 문화 예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예산의 배정 혹은 증가 여부가 행복에 영향을 실제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 연구를 통해 행복도 증가에 얼마나 타당한 효과를 얻는 지 살펴보려 한다.

영국의 게이츠헤드나 뉴욕시의 경우에서처럼 문화를 통해 도시 재생을

이끌고 주민 삶을 증진시키는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지역 단위’의 문화 계발을 통해 문화 도시 가능성을 엿본다.

이에 대한 통계 결과 문화 예산은 주민 행복도 증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주민 행복도에 양(+)의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입증했다. 이는 문화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문화 재정을 늘리는 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 활동(공연 횟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민간 부분의 활동으로 살펴본 문화 활동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한다. 민간 부분에 대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지역 주민의 행복도를 증가 시킬 수 있을지 문화 정책을 세분화해 지역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지역 주민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문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문화 도시’를 내세우는 지역 사회가 늘고, 문화 예산 비중을 늘리는 곳이 점차 늘고 있는 요즘이다. 문화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는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불안정한 문화 예산의 편성을 제고해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문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 문화 진흥이나 문화 향수권 신장이냐를 두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문화 향수권의 증진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다. 문화예술의 향유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지원에 있어서는 문화바우처 제도와의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요어 : 문화예산, 문화 활동, 주민 행복도, 문화 복지, 문화 예술 정책,

지역 문화예술 재정

학번 : 2000-23015

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5
제 1절 행복과 문화 예산-----	5
1. 행복의 개념-----	5
2. 문화 예산(문화 재정)-----	11
3. 행복과 문화 재정-----	13
제 2절 문화 예술 활동의 사회 경제적의-----	19
1.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20
2. 문화 향유와 사회 취약 계층 보호-----	24
3. 문화 예술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치 -----	30
4. 문화 복지-----	33
제 3절 문화 예술과 행복 도시-----	36
1. 문화 도시 이론과 실례-----	36
2. 문화 활동과 예산 추이-----	40
3. 지자체 문화 예산과 문화생활 만족도서베이조사-----	41

제 3장 선행연구 검토-----	52
제 1절 삶의 질 영향 요인-----	52
제 2절 문화 예산, 문화 활동과 행복-----	54
제 3절 본 연구의 방향-----	62
제 4장 연구설계-----	64
제 1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64
1. 연구가설-----	64
2. 분석모형-----	66
제 2절 변수 선정 및 자료-----	67
1. 종속변수: 주민 행복-----	67
2. 독립변수: 문화예산 비중 및 문화 활동-----	69
3. 통제변수-----	70
(1) 재정자립도-----	70
(2) 지방소득세-----	71
(3)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72
(4)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 비율-----	72
(5)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73
제 5장 문화예산, 문화 활동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75

제 1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75
제 2절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결과-----	77
1.문화 예산과 문화 활동의 유의미성 여부-----	79
2.통제 변수 통계 유의미성-----	81
제 3절 로지스틱스 회귀값과 승산비-----	83
제 4절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책적 함의-----	87
제 6장 결론 및 정책적 논의-----	94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94
제 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9
<참고문헌>-----	101

표 목차

<표 1> 행복에 대한 개념 분류-----	9
<표 2> 전국 주요 문화 기반 시설 현황(1997~2010)-----	18
<표 3> 기초 지자체 문화 재단 설립 추이-----	28
<표 4>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예술의 효과-----	32
<표 5-1> 주민행복도 상위 20-----	42
<표 5-2> 문화 활동 여건 만족도 상위 20-----	43
<표 5-3> 공원 및 여가 시설 만족도 상위 20-----	44
<표 5-4> 전체 예산 중 문화 예산 비중 상위 20-----	47
<표 5-5> 문화 활동(공연 횟수) 상위 20-----	50
<표 6> 연도별 서울·지방 총 예술행사 추이-----	52
<표 7> 연도별 서울·지방 총 예술행사 비율 추이-----	52
<표 8> 선행연구 검토-----	62
<표 9> 변수의 측정지표 및 출처-----	74
<표 10> 기초통계분석결과-----	76
<표 11> 문화예산, 문화 활동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결과-----	79

<표 12-1>모형 1~3의 회귀계수와 이에 대응되는 승산비 값-----	85
<표 12-2>모형 4~6의 회귀계수와 이에 대응되는 승산비 값-----	85
<표 1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	92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는 ‘문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와 존 나이스비트 등은 각자 저서에서 21세기의 지형도를 그리면서 미래의 도시경쟁력은 문화에 있고, 21세기는 다양한 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다원주의시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문화 도시에 대한 개념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서구 문화도시의 흐름을 바탕으로 도시 정책 방향을 제안한 저서 ‘문화 정책과 도시 재생(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1993)의 저자 프랑코 비안치니(F. Bianchini)는 과거 예술과 문화가 경제적 가치나 지역 개발과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도시 문화 정책은 과거 예술과 문화 경제적 효과 등과 맞물려 정책의 중심이 되는 원리로 작동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 ‘문화부’가 창설되고, 예술 지원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자며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

회’로 재출범하는 등 문화 정책과 문화 도시 개발은 궤를 같이 하며 발전해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이 4대 과제가 됐다. ‘문화예술이 융성한 도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문화 예술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경제가 시민들과 함께 조화롭게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문화도시라 일컫는다. 이처럼 문화 도시 육성을 가리켜 ‘21세기 르네상스’라고 부르듯 ‘문화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도시 성장의 목표를 삼는 것은 21세기 트렌드가 되고 있다.

소득 수준이 일정부분 이상 증가하면 더 이상 행복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 1974)이후 다양한 행복 결정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스털린 이후에도 소득이나 자산과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가 감소하는 시점이 국민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등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장이 바탕이 됐다면 경제적 수준이 아닌 다른 정서적 가치를 충족시켜야 삶의 만족감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Deaton, 2008; Veenhoven, 2005; Diener and Biswas-Diener, 2002; Inglehart, 2000 Easterlin, 1974).

소득 이외에 분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가치관의 변화로 시민들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후기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됐다(Ingelhart, 1997) 연구를 필두로 경제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을 논하기 시작했다. 경제발전이 자동적으로 삶의 만족과 질을 제고시키지 않는다는 발견과 함께 다른 요인의 중요성을 논의한 것이다. (박종민·김서용, 2002; 고명철·최상옥, 2012; Lambiri et al., 2006, 배정현 2014 재인용) 이는 각 지역이 문화를 삶의 질과 연결시켜 지역 발전을 추구하려는 문화 정책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 자치단체는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서비스와 각종 문화 행사 등 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에 대해서도 가장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문화 정책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두기도 했다.

지역문화축제의 양적 증가도 이뤄졌다. 지역축제는 1회성 행사가 많아 구체적 통계 수치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지만 1995년 400여개에서 2005년 1000 여개까지 늘었다고 보기도 한다(박상언, 2005 : 168).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역마다 미술관, 전시관, 아트센터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 시설을 경영한다든가, 문화예술 활동 자체와 그 결과물 등을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문화예술시설을 방문하여 감상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훨씬 늘어났고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경영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허훈, 2014 : 319)

그렇다면 각 기초자치단체가 문화 예산을 늘릴 때 실제 지역 주민의 행복도도 향상이 되는지, 예산 비중과 시민 행복은 어떤 유의미성을 가지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적인 행복도 조사가 이뤄진 2014년 서울 행정대학원 서베이 조사를 바탕으로 각 기초단체의 문화 예산의 증감과 전체 예산대비 비중, 또 공연 횟수로 설명하는 문화 활동이 실제 주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바에 대해 조사한다. 문화 예산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문화 관련 설비, 교육, 지원, 투자 등을 뒷받침해준다.

또 공연예술 시연 등 지역 내 문화 활동은 주민들의 눈앞에 직접 펼쳐지는 유형적 행위다.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 주요 프로그램과 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이런 현상이 지역 간 불균형과 불만을 가져온다. 문화산업의 핵심 가치인 콘텐츠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방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장비·시설 위주의 지원 방식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는 별도로 예산의 과투자와 비효율을 낳았다.(소병희, 2010 :117) 또 각종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는 공연 예술(연극·뮤지컬 등)의 경우 장소·시간이 마련돼야 시행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축제와 함께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에 특히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공연예술의 특징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 제작물이 직접 시연되는 현장성을 들 수 있으며, 관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람이 직접 무대에 나서 관객과 배우가 교감을 이루며 한번 막을 내리면 똑 같은 것이 재생될 수 없다. 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공연 일정과 무대가 밀집돼 있고 지방 순회공연 등은 자주 이뤄 지지 않는 등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함께 검토해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공연 횟수 증감이 행복감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이나 소득 수준과 삶의 질 등에 대한 상관관계 조사는 여럿이었지만 문화 요소(예산·활동)가 각 기초 자치 단체 지역 주민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조사에 대해 이뤄진 바는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첫 연구가 될 것이다.

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행복과 문화 예산

1. 행복의 개념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심신육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그러나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Veenhoven, 2007), 행복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행복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크게 근원과 성격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복의 근원(locus)을 인간 내적인 것에서 찾느냐 혹은 외적인 것에서 찾느냐의 문제와 행복의 성격(focus)을 주관적인 만족이나 쾌락으로 볼 것이냐(hedonism) 혹은 개인이 가진 가치나 역량의 추구로 볼 것이냐(eudaimonism)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행복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심리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구교준, 2015)

Easterlin 이후 많은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이 기존의 객관적 방법이(선택을 통해 현시된 선호) 아닌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행복)을 통해 효용을 대리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Fordyce(1988)는 다양한 형태의 주관적 만족 지표들이 상당히 높은 연관성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소득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교육, 환경, 안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의 주관적 만족감도 영향요

인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예: Mohanty, 2014). 이에 정부는 국민 삶의 주관적 만족감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게 된다.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이나 정부의 정책 또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그 효과에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예: 고명철, 2013a; 이태종 2005 ; 김병섭, 2015 재인용)

개인수준의 정부의 질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상당수의 연구들은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만족 등 정부의 질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특정 영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최준호 외, 2003; Grzeskowiak et al., 2003; Sirgy et al., 2000,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삶의 만족에 중요 영향요인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부의 특정 영역(도로, 교통, 소방, 학교 등)에 대한 만족을 고려해 분석했다.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로 정의되기도 하며(Diener, 2007; Dolan, 2007), 웰빙 또는 삶의 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Veenhoven, 2007; Donnelly, 2004). Diener and Lucas(1999)는 ‘삶의 만족’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Myers and Diener(1995)는 ‘주관적 안녕’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사고

정향' 으로 왔다. '세계보건기구(WHO, 2004)는 '삶의 질' 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 안에서 자신의 목표·기대·관심과 관련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 이라 정의하고 있다. Stock, Okun and Benin(1986)는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안녕은 행복(Happiness), 도덕(Morale), 만족감(Satisfaction)의 3가지 지표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한다.

Sandvik(1993)등은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 지표들이 하나의 개념을 일관성 있게 대표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내려진 결론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으로 표현되는 주관 지표가 인간의 후생과 효용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타당한 측정 도구라는 점이며, 이는 비로소 주관적 안녕에 기초한 hedonic한 행복 연구를 경제학의 중심에 한 발짝 더 가깝게 가져다 놓았다.

1990년대에 들어 Seligman(Seligman, 2002; Seligman & Csikszentmihalyi,2000) 등을 중심으로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라는 분야가 확립되면서 심리학에서 eudaimonism의 시각으로 행복을 바라보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Subramanian et al.(2005)은 평균적인 건강 수준과 행복 수준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Diener and Lucas(1999)는 행복 수준은 육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긍정적인 성격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규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나 건강만큼 뚜렷하지는 않으나, 개인이 스스로의 필요 혹은 배움의 욕구 충족을 위해 추구하는 직업교육이나 취미교육은 상대적으로 행복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og and Oosterbeek, 1998; Michalos, 2008). Inglehart(2009)는 국가 간 행복 수준의 차이를 그 사회의 안정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한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이나 테러로부터의 위협 정도 등은 국가 구성원의 행복 수준에 주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분석에 활용한 것이다. Layard(2005)는 행복을 인간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써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선(self-evidently good)이라고 정의했고, 이지은·강민성·이승종(2014)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함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는 지자체에 눈높이를 맞춘 연구이므로 그 맥락에서 최영출(2014), 김병섭(2015)이 정의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적용하고자 한다.

<표 1> 행복에 대한 개념 분류

구분	내용
긍정심리학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장점들을 이해하는 학문’

<p>(Positive Psychology)</p>	<p>로, 이러한 장점들로 사람들을 심리적·육체적으로 돕기 위해 촉진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 으로 정의 됨.</p> <p>심리학적· 사회학적 긍정은 행복의 요소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지금순간이든 긴 시간이든 긍정적이라 함.</p> <p>긍정은 상태이자 목표이며, 목표로서 긍정은 가치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고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임.</p> <p>긍정은 협동, 보상, 만족, 실행에서 능동적으로 삶을 찾는 것을 강조하고, 긍정이 여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p>
<p>행복경제학 (Economics of Happiness)</p>	<p>소득으로 웰빙을 측정하는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여 보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행복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해온 방법론에 심리학자들이 사용해온 방법론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p> <p>행복경제학자들은 행복의 계량적 측정 및 결정요인 연구에 근거해 정부 정책 목표가 부(wealth)가 아닌 삶(life)의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p>

<p>주관적 웰빙 (SWB: Subjective Well-Being)</p>	<p>행복은 기쁨, 행운, 만족,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관적 웰빙(SWB:Subjective Well-Being)’ 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음</p> <p>사람의 감정적 반응과 분야의 만족, 삶의 만족에 대한 전체적 판단을 포함한 현상의 넓은 범주로 사용됨</p> <p>주관적 또는 사회적 웰빙을 위해 개인은 능동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개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웰빙은 목표가 되면서 개인의 전반적인 행복을 증명하는 지표임</p>
--	--

<자료: 윤소영(2013) 참고 재작성>

2. 문화 예산(문화 재정)

문화 예산이 지역 주민 행복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문화 예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문화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문화 예산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분석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예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달라졌던 것

을 보아도 문화 예산을 정해볼 필요가 있다.(구광모, 1994) 각 정부마다 문화에 대한 정책을 새로이 하고, 문화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기존에 문화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항목들이 범주에 포함되거나 중앙 정부에서 이뤄졌던 역할이 지방 정부로 이전 되거나 확장 되는 일이 생겨났다. 박신의(2008)는 정부 문화예산의 범위를 다루면서 가장 큰 범주로는 문화, 체육, 관광을 모두 포괄한 예산으로 한정하고, 좀 더 협의의 범위로는 문화예술을 포함한 문화로 봤으며, 가장 협소한 범위로는 문화예술의 예산만 한정했다. 김동욱(2011)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부문과 기구들을 총망라하여 그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활동에 지출된 비용을 문화재정으로 규정하는 유네스코 방식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문화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앙 정부 문화예산의 경우 2005년까지 ‘문화정책백서’에 따르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예산을 합한 규모에서 체육부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예산을 ‘문화재정’으로 파악했다. 2006년부터는 문화재청을 제외한 당시 문화관광부 재정(예산 및 기금)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산 정의해 기존 범위에서 문화재청 예산이 제외됐다.

2008년 연구에선 체육 예산까지 포함시켜 문화 체육부, 문화재청 예산을 총괄해 문화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같은 기관에서

조사하는 문화예산인데도 범위가 다른 경우를 볼 수 있다. 지방 정부 문화 예산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증가하면서 비중 면에서 중앙 정부 문화 예산보다 더 많다.(김세훈, 2003) 문화정책백서(2009)에선 문화예산 범위를 ‘예산과 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선 문화정책백서, 재정고 등을 기준으로 문화와 관광 예산을 ‘문화 예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 행복과 문화 재정

국내 문화재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12개 분야 중 하나로 예산편성체계상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예술부문 예산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일부를 소관하게 되었으며, 문화재정은 2014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 포함한다.(기획재정부)

1985년 유럽각료회의에서 역사가 잘 보존되고 다양한 예술이 실현되는 곳을 문화 도시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이후 매년 ‘문화 도시’가 발표되고 있다. 한마디로 역사적 정체성이 있고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7년

‘문화비전2000위원회’에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공식 규정하면서 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문화 도시를 ‘역사’ 등 장르적으로 해석(라도삼, 2013 :19)한 국가 주도적 차원의 투자도 있었다. 2007년도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광주가 선정돼 정부·민간투자·시에 산 등 총 2023년간 5조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같은 해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1조7000억 원), 경주역사문화중심도시(3조4000억 원), 공주부여역사중심도시(2009년, 1조3000억 원) 등 20~30년간 수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20개소(문화도시 7, 문화마을 13)에서 2017년 52개소(문화도시 20, 문화마을 32)로 지원도 확대됐다.

문화도시는 1개 도시당 7억5000만원(국비 3억, 지방비 4억5000만원) 내외 5년간 지원이고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을 일컫는 ‘문화 마을’은 1개 마을당 2억원(국비 8000만원, 지방비 1억2000만원) 내외로 3년간 지원한다. 지자체는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을 내세워 예산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궁극적 가치의 최종상태인 문화도시 실현을 꾀하고 있다.

문화 부문의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은 2000년 0.96%에서 2005년 1.06%로 오르다가 잠시 주춤했으나, 2015년에는 1.54%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총생산에 대비한 문화 예산은 2010년에 0.31%에서 2014년에는 0.36%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가운데 문화 예산 편성 비율은 문화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의 2.31%, 이탈리아의 1.95%, 프랑스의 1.85%에는 못 미치는 비율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타이완,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절대 예산액에서도 그렇고, 인구 규모를 고려한 1인당 문화 예산에서도 절반쯤이라고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문화재정은 정부 총 예산의 1.5%로 소규모 재정이거나 높은 증가세다. 2013년 현재 문화재정은 5조 원으로 정부 총 예산 341조 원의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2개 국가재정분류 중 외교·통일(1.2%)다음으로 작은 소규모 재정이다.

12개 분야 중 예산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28.5%), 일반 공공행정(16.3%), 교육(14.6%)으로 3개 분야가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함. 반면 문화재정은 2009년 3.9조 원에서 2013년 5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6%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정부 총 예산 증가율 3.2% 대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12개 국가재정 분류 중 가장 증가율이 높다. 12개 분야 중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

율이 정부 총 지출보다 높은 분야는 문화·체육·관광(8.6%),외교·통일(8.1%),R&D(7.4%),교육(6.2%),보건·복지·노동(4.9%),공공질서·안전(4.9%),국방(4.3%)순으로 문화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

하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발표된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를 살펴보면 OECD 38국 중 28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행복하지 않은 개인과 마주하고 있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각종 여건을 갖추고 개선되고 있음에도 개인이 인지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은 객관적인 삶의 질 여건이 불충분한 국가의 국민보다 더 낮은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과거 유산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도시 설계보다는 균형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문화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융성’은 국가의 기치가 됐고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지역희망 HOP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4년에는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육성을 국정과제 삼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됐다.

문화는 도시 재생은 물론 재정 투입 그 이상으로 무형의 만족감을 준다. 지자체별로 ‘문화’를 앞세워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를 잘 설명하는 나라 중 하나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12년 간(1981~1986, 1988~1993) 문화부 장관으로 정책을 펼친 자크 랑(Jack Lang)이 미테랑 대통령(Francois Mitterrand)의 지지 하에 집권 기간에 문화부 예산을 국가 총 재정규모의 1%로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시키면서 문화융성의 대표적인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비주류의 예술 영역이던 서커스, 사진, 클래식 이외의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장려 정책을 펼치고, 지방 분산화를 확고히 하고자 지방문화행정사무국(DRAC, directions re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을 각 지역에 22개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평균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사회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은 안정된 일자리, 건강한 생활환경, 견고한 사회안전망, 긴밀한 유대관계, 정감어린 사회공동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등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더 중요 돈보다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시민들의 삶의 만족은 그들의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반영해 평가된다(Eckersley, 2000). Milbrath(1979)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낮은 만족은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elliwell and Huang(2008)의 연구에서 시민들이 삶에 만족을 느끼는데 정부가 신뢰할만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직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European Social Survey(2004)에 따르면, 삶의 만족은 가치관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강한 정부, 부, 안전보다 모험, 성실,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주의와 물질적 소비를 강조하는 가치관은 삶의 만족을 저해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가치관은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했다. 돈과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 이동원(2007)은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의 행복은 낮고 종교, 가족, 여가를 중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분석했다. Victoria 외 13명(2009)은 국민의 행복은 국가의 사회적 여가 제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표 2〉 전국 주요 문화 기반 시설 현황(1997~2010)

	1997	2002	2005	2007	2009	2010
공공도서관	330	462	514	607	644	759

문예회관	-	122	150	161	182	193
국공립 박물관	48	79	139	267	311	319
국공립 미술관	9	9	18	28(08)	33	35
지방문화원	190	211(01)	-	233(08)	227	229
문화의집	15	123	165	157(06)	147	156
문화지구, 문화의거리, 문화도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4개 문화 지구 지정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23개 문화 도시 거리 조성(1999~2004) *4개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 -경북, 전주, 공주.부여, 유니버설 *5개 공공 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안양 만안구, 경기 양평,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부산 진구					

<자료 : 김세훈·조현성(2008) 김연진(2011) 양혜원 외(2011), 각년
도 예산·기금 운용 계획, 문화원 설립현황(2001)을 토대로 재작성>

제 2절 문화 예술 활동의 사회 경제적 의의

1.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공연예술 상품은 노동집약적인 상품이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일이며 기계나 기술의 진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장성과 동시성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상품이 만들어지는 계기마다 동일한 수준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무대작업자, 기획자, 공연장 운영인력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총체성으로 여타의 예술분야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동원된다.

현장성이나 동시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은 소비방식에도 제약을 가한다. 태생적으로 공연예술은 다른 미디어로 재생될 수 없으며 반드시 생산현장에 소비자가 참여해야 한다.

관객으로서 소비자는 상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요소이다. 만약 생산과정 또는 그 현장에 관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연은 상품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공연장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범주 내에서만 조성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수는 공연장의 좌석 수 또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요는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만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들은 동시에 비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 지출이 증대되는 건 산업화나 소득 수준을 주된 원인으로 했다. ‘시장의 실패’ 라는 용어가 낫설었던 19세기 당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공부문을 넓히는 개념을 소개한 것이 이른바 ‘바그너의 법칙’ 이다.

19세기 공공경제학자 바그너가 말했듯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 총생산(GNP)에서 공공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욕구가 증대됨으로써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예술의 소비증대는 시장에서 더 많은 문화예술의 공급을 요구하지만 비용질병이나 시장의 실패로 인해 공연예술의 공급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결과 소득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면 이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문화예산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김동욱, 2011)

비용의 질병과 시장실패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 상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사회공헌적 특성 때문이다. 공연예술은 이른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다. 개별적인 소비자에게 향유의 기쁨과 삶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제3자가 간접적인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다. 이것을 흔히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공공재는 소비될수록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뉴욕 시민의 세금을 줄여준다거나 에든버러의 축제로 에든버러시의 실업률이 현격히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공연예술 상품의 역할이 지대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부문의 직간접적 지원이 타당성을 얻게 되고 결국 공연예술 상품이 소비될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이승엽(2002)은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공연 예술의 사회적 기능으로 문화 예술 소비에 장애가 있는 공연예술의 사회적 기능으로 문화예술 소비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자나 연금생활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 예술에 대한 소외가 가져오는 박탈감이 삶의 질의 손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에 참여하지 못하면 비용은 부담하면서 혜택은 보지 못하는 결과도 낳게 되는 것이다.(이병일, 2011 재인용)

문화 정책에 대해선 삶의 질을 관점으로 문화 경제학적인 관점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지역격차는 주로 경제적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문화 부분이 문화부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척도로서 문화의 격차가 중요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문화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였을 때, 문화정책은 대체로

중산층에게 그 수혜가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Warren, 1993).

특히 예술은 ‘고급 예술’을 지향하는 상품일수록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클래식 공연이나 해외 뮤지컬 작품 같은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예술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증명했듯이 고급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문화자본은 소득수준과 비례하는데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가격에 둔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김주호, 2004)

또 임상오(2001)의 경우, 고급 공연예술이 사회적 지위와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 욕구가 결합된 사치재로 간주되어 공연예술 수요는 교육 수준과 관련 있고, 공연 예술 소비가 증가 여부 역시 교육 수준과 관계있으며 소비자의 소득 간에는 교육 수준은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므로 공연예술 수요와 소비자의 소득 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정광렬(2010)은 예술의 가치적 성격을 고려해 예술 정책의 실패 원인을 고찰했다.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재화를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하여 가치의 왜곡이나 사회적 동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예술정책에서 정부가 직접 작품을 창작하거나, 지원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들로 예술 정책의 위기가 온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 예술 소비 대부분은 교육과 소득 수준이 일정정

도 높은 계층과 도시에서 주로 이뤄져 수혜자와 부담자가 불일치하면서 생기는 역진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2. 문화 향유와 사회 취약 계층 보호

문화라는 건 일부 소수 엘리트 계층이 누리는 특수한 소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선진국 개념에 맞게 보편적 향수 대상이라는 전환이 일어났다. 문화를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보는 문화 복지 개념이 대두된 것이다.

경제 생활 수준이 향상 되면서 모든 계층의 문화적 욕구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다. 최종혁 외(2010)는 오늘날 문화의 향유가 특정 소수계층에 한정되는 사치로서의 인식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보편성원리에 입각해서 문화를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삶의 질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이라는 것이다.

문화 향유 그 자체로 행복이면서도,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문화를 보았다. 그런 점에서

불 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배제는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행복한 삶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종혁 외, 2010 재인용)

이처럼 문화 예술에 대한 소외를 겪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우 문화 향수의 기회나 문화 활동에 대해 배제 될 수 있어 문화 취약 계층이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들이 있다. 문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및 문화 활동 경험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계층사이의 이동(social mo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문화자본(김기덕, 2007: 37, 최종혁 외, 2010 재인용)이 된다.

해외의 경우에는 접근성 보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아이오와 주의 ‘I-CARD(아이 카드 Iowa-Cultural Alliance Recruitment and Development)’는 저소득층을 위해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기관 무료나 할인 입장을 가능케 하고 이 카드를 통해 경제적 빈곤과 상관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링컨센터에선 저소득층과 흑인 계층에 대한 가격 장벽을 낮춰 신입회원 56%가 저소득층, 44%가 흑

인계층으로 이뤄지는 결과를 낳았다.(박미애, 2009)

영국의 문화정책은 1997년 토니블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요한 변화를 보였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에서 ‘접근성 제고’ 영역이 크게 강조된 것이다. 조현성, 김세훈(2008)은 해외 문화복지를 비교하면서 영국에선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으로 토니블레어 정부 동안 모든 정책의 강조점이 사회적 배제 그룹에 대한 포용전략 아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영국의 저소득층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문화예술향유 활동에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Space for sport and arts’ 가 있고,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 레저, 재활, 교육, 일자리 기회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Day Service’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 도시 성공사례로 꼽히는 게이츠헤드의 경우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지역의 예술극장, 박물관, 미술관에 갈 때 보다 저렴한 할인가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Getting There Art Taxi Scheme’ 프로그램(조현성·김영범·이주연, 2003)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접근성 보장과 사회적 포용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 역시 여기에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책의 적극

성에선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문화예술의 시대에 발맞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의 소극적인 정책을 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지원해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회적 문제까지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기회평등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한다.

특히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이들이 문화예술향유의 기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미애, 2009 ; 최종혁 · 이연 · 유영주 · 안태숙, 2010)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예술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일반 대중의 예술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다(정광렬, 2010).

결과적으로 예술지원 및 후원에 있어서도 한국 대중의 역할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이호영 · 서우석, 2011). 신병동 · 백승흠(2009)은 문화가 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근대 이후로 20세기 전반까지의 문화정책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국민의 문화적 통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2차 대전 이후 표현의 자유에 기

초를 두는 예술 활동 진흥이 문화정책으로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Scitovsky는 인간들은 자극적이고 모험적이며 흥분되는 것들에 대해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문화·예술행위는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인간들은 또한 도박 폭력과 범죄 등을 통해서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도 있으며, 문화예술이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다면, 욕구의 비도덕적인 출구를 막는 역할을 문화예술행위가 할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표 3> 기초 지자체 문화 재단 설립 추이

1998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1	2	1	2	2	1	6	4	1
강릉	부천	고양 거제	성남	서울 중구 김해	부평 전주	의정부	마포 구로 서울 강남 화성 아산 창원	안양 춘천 익산 인제	원주

<자료 출처: 정광렬(2010) ※ 문화시설의 법적위상이 재단법인인 경우(하남 등), 축제조직위가 재단법인(수원 화성, 진주 등)인 경우 등 문예진흥 사업이 없는 재단법인은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다.>

3. 문화 예술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치

문화 예술은 정서 순화와 사회 통합, 소외 극복과 함께 교육적 기능을 지닌다. 이는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가인 피에르 코르네이유와 장 라신 등 극작가가 내놓은 문화 예술의 순화이론(純化理論·카타르시스)에서 볼 수 있다. 연극은 감정을 승화시킨다는 종교적인 맥락에 기초를 두고 나쁜 감정을 순화해 고결한 기질로 변형한다고 본다.

또 Bernays—Weli 이론은 배설(排泄)로 보는 것이다. 연극이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약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Butcher, 1951: 245 ; 윤용중 2002 재인용). 이와 함께 예술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술 치료’라는 분야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과 예술이 가진 힘을 의료 전문가와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또 미술관과 박물관은 주요한 교육 환경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소외이론에서도 문화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세분화·기계화·

분업화되고 비문화적인 노동으로 인해 소외된 노동자들이 여가를 이용해 자신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이다. 정신의 소외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또 여가 활용에서도 문화적 가치보다는 소비 증가에 주력하면서 여가로부터 소외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최종혁 외(2010)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기능을 연구하면서 문화 복지실천가들에 의하면 문화는 변화, 자기개발, 자기정화, 소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교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의 이러한 도구적 기능에 의해 문화적 감수성 향상, 잠재능력의 개발, 자존감의 향상을 통한 주체성 확립,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도구적 기능으로서의 문화는 삶의 양식, 가치, 신념 등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변화는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새로운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허훈(2014)는 문화예술의 지역 만들기에 대한 효용을 검토하면서 예술 활동의 생산 혹은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은 창의성과 독창성 등이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주기도 하는데 거주 공간 가까이 문화 예술 활동이나 시설에

접촉할 기회가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사회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문화자본과 지역사회 주민참여간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한다 (Jeannotte, 2003)고 말한다.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 혹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주민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건강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민소영, 2013; 허훈 2014 재인용).

<표 4>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예술의 효과

		직접참여	관객참여	예술가, 예술단체 및 기관
개인	신체적 건강	건강 증진하는 대인 관계 구축. 자기표현과 향유 기회 증가. 청소년범죄 감소	향유기회 증가 스트레스 감소	예술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 증가
	인지적		문화자본 증가	

	심리		시 공간 추 리 력 ,학업성적 향상	
	대인관계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타인과 소통 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포용력 증가	
사회	경제적	종업원 임금	관광객 등이 예술 관람 등에 비용 지출 예술 시설 들 이 지역에 지출해 간접적 배가	지 역 사 회 구 성 원 예술참여성향 증가. 관광객, 기업, 투자자 등에 지역 매력도 증가. 창조산업 성장 촉진하는 경제부흥가능성 높아짐
	문화적	집단적 정체성과 효능감 증가	지 역 사 회 정 체 성 과 자 부 심 . 다양성관용 등 긍정적 공동체 규범 확산	지역사회 이미지와 위상 제고
	사회적	사회적 자본 형성	서로 함께 함	이웃의 문화 다양성 제고와 범죄 등 감소

<자료 : Joshua Guetzkow(2002), 양혜원(2012) 재인용>

4. 문화 복지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을 감싸고 국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예산의 투입과 문화 향유의 장벽 없는 확산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 정책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문화 복지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용호성, 2012; 양혜원, 2013; 서우석, 2015).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문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다(Reeves, 2002; Mulcahy, 2006; 박신의, 2013; Carnwath & Brown, 2014).

이는 투입되는 재원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명에 의해서만 사업이 정당화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정책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표상하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주체로 나서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의 사회적 영향을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오양열(2008)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복지가 국민 행복 증진과 함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소외 계층을 상대로 확대된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된다.

예술 역시 고급 예술에서 생활 예술로,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 순화 기능이 강화되기도 한다. 정치적 불안과 빈곤에 허덕이던 베네수엘라 학생들에게 총 대신 클래식 악기를 들려 가르쳤던 ‘엘 시스템아’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모범 사례가 된 것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착안해 예술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학생오케스트라사업을 시작했다.

또 E. Shorris(2009)가 시작한 취약계층 대상의 인문학 강좌에 착안한 ‘희망의 인문학’이 서울시에서 운영됐다. 김예진(2010)은 대학박물관의 경우 과거 대학 내 연구자와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현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보몰과 보웬(Baumol & Bowen)은 공연예술은 국가에 위신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활동의 확산은 주변의 비즈니스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의 사회경제적 효과나 문화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또한 프레이와 폼메렌(Frey and Pommerehne)은 문화의 긍정적 외부성으로 위광가치(prestige value)를 주장했는데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헤일번과 그레이(Heilburn and Gray)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편익과 예술 활동 참가를 통한 사회진보를 주장했다. 문화·예술의 외부이익은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국가적 자긍심을 주고, 둘째 관광객을 확산하고 관광객 추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문화 예술의 긍정적인 관점중 하나가 관광 산업으로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책임감 증진, 넷째로는 후대를 위한 예술행위 유지하거나 보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도시 재개발 촉진 등 이상의 5가지를 문화·예술 재정지원이 창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김석태, 서준교 2002, 이병일 2011 재인용)

문화 예술 지원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문제는 문화 정책에 대한 실질 수혜 여부다. 정광렬(2010)은 문화 향유 욕구는 높아지는데 실질적인 문화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정체를 겪는 현상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여가시간의 문화 참여 욕구는 16.4%인데 반해, 실제 참여수준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0 국민여가활동조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실제 문화소비는 정체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3절 문화 예술과 행복 도시

1. 문화 도시 이론과 사례

문화 예술은 행복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설명된다.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통해 지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 개발도 하는 것이다. 피터 듀런드(Peter Drelund)가 소개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개념처럼 1990년대 중반이후 도시의 창의적인 예술 인구를 중심으로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이 부상하였고 기존사업이 고도화되는 한편 낙후지역을 재생하여 새로운 성장발판을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7.11).

김은경 변병설(2006)은 문화도시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 환경의 한 영역인 축제나 문화이벤트가 도시민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경제의 기반을 탄탄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공 사례 : 일본 나오시마

인구 3900명의 외딴 섬 나오시마. 일본의 이 작은 섬을 찾는 관

광객이 한 해 30여만 명이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나오시마는 금속 제련 산업으로 곳곳이 민둥산이었다. 나오시마를 바꾼 것은 출판기업인 '베네세'가 1989년 시작한 '아트 프로젝트'. 베네세는 나오시마를 자연과 예술이 하나가 된 '문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도 다다오에게 그 중추 역할을 부탁했다.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베네세하우스를 1992년에 건립하면서 문화예술에 의한 재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98년에는 섬의 민가를 복원하고 개조하고, 새로운 집을 지을 때도 문화 예술을 입히는 방식이었다. 태생부터 문화가 중심이 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에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지중미술관을 건립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싶고, 꼭 가보아야 할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중미술관에는 인상파 화가 모네의 방이나,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이우환 등 세계적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도시는 기업의 사회 공헌이 중심이 됐다. 지자체는 관광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중점으로 하는 나오시마 활성화중장기 플랜을 수립하였다. 주민들은 자원봉사를 하거나 경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면서 협력했다.

섬 전체의 예술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지구가 된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가가와현 35개 기초 자치단체 중 소득 1위로 올라섰다(2007년 기준). 인구감소세는 멈추고 젊은 층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여운상(2009)은 사회공헌 투자를 한 베네세 그룹도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며 2008년에는 세계적인 불황에도 연매출이 7%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영국 게이츠헤드

잉글랜드 북동부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인 게이츠헤드는 19세기 까지 탄광산업, 1970년대까지는 석탄과 제철, 정유, 조선업 등으로 번창하던 도시였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이후 대처 정부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광산 폐쇄 조치를 내린 뒤 경기 침체에 따른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에 빠졌다.

1990년대 게이츠 헤드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 시설을 건립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부활을 꿈꿨다. 도시 재생 사업의 총감독을 건축가나 도시 계획가가 아닌 연극 전공 예술가가 맡아 예술을 집중 수혈하는 다양한 관점으로 도시를 변화시켰다. 1994년 영국조각가 앤토니 고펀리(Antony Gormley)에게 의뢰하여 당시 14억원(80만파운드)라는 거금으로 임대주택이 있던 구릉지에 ‘북쪽의 천사’ 라는 이름의 청동상을 설치한다. 1998년 완성된 천

사 조각상은 영국 최고의 공공미술품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전 세계에 게이트헤드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김진성, 2012: 276~286).

천사조각상에서 시작된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새천년을 맞아 눈썹모양으로 다리가 접히는 보도교인 밀레니엄브리지(2000년)를 건립하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2년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밀가루공장을 개조한 발틱현대미술관을 지었고, 2004년에는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쓰레기매립장에 1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이지음악당을 건립하는 등 문화예술에 의한 도시재생을 꾸준히 실천했다.

게이트헤드는 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과정을 겪었다. 북쪽의 천사에 예산을 쏟아 붓는 대신 복지시설이나 학교에 투입해야 한다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은 한해 15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약 1조원의 부가가치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틱현대미술관 역시 전문작가들뿐 아니라 시 주민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로 시내 외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개관 후 10년 동안 약 500만 명이 관람했다. 세이지 음악당 역시 최고수준의 콘서트홀로 연주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총괄 감독한 피터 스타크(Peter Stark)는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으로 첫째 지역주민이 원하고 누려야 하는 문화적 욕구와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을 들었

다. 둘째로는 지역문화정책 전문가와 시의회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만장일치의 원칙아래 상호 협력한 것을 들었고, 셋째로는 외부관광객의 눈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주민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우선한 것을 들 수 있다고 했다(이경모, 2011:93).

2. 문화 활동과 예산 추이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 산업 역시 양적 질적 팽창을 거듭했다. 질적인 요소에 대해 계량화는 어렵지만 양적으로는 공연 성과를 숫자화 할 수 있다. 횡수나 매출, 점유율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중 성과 지표로는 공연 횡수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영화 산업의 경우 통합전산망 등의 구축으로 대체적인 매출이 집계되지만 공연 산업의 경우 인터파크 등이 전체 티켓 산업의 90% 이상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대략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실태조사’와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이다. 문화 예산의 증가에 따라 공연 예술이 어느 정도 증감 추이가 있는지 함께 살폈는데, 시기별, 정권별로 약간의 증감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화 예산과 공연 횡수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자체 문화 예산과 문화생활 만족도서베이조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센터에서 도출한 행복도 결과와 행복도를 결정하는 문화 관련된 요소 중 무엇을 사용해 만족도 조사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살폈다. 또 문화 예산 비중 순위를 통해 어떤 지역에서 예산 확보에 활발하며 어떤 함의가 있는가도 함께 살폈다.

〈표 5-1〉 주민행복도 상위 20

순위	지역명	평균
1	강원 양구군	4.0201
2	서울 서대문구	3.8726
3	제주 제주시	3.9668
4	서울 동작구	3.9605
5	경북 김천시	3.9394
6	경기 성남시	3.9320
7	전남 영암군	3.9220
8	충북 옥천군	3.9161

9	경북 울릉군	3.8982
10	전남 보성군	3.8950
11	대구 달성군	3.8697
12	전북 진안군	3.9533
13	울산 동구	3.8514
13	울산 남구	3.8514
15	전남 고흥군	3.8469
16	인천 남구	3.845
17	대구 수성구	3.8412
18	전남 순천시	3.8411
19	부산 금정구	3.84
20	서울 서초구	3.8391

위는 서울대 행복도 서베이조사에서 나온 상위 20개 지역을 비교한 것이다. 서울대 서베이 지표에선 문화 만족도에 관한 요소로 <문화 활동 여건 만족도>와 <여가와 공원 시설 만족도>를 들었다. 문화 활동이란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여건이 어느 정도 잘 마련돼 있느냐는 것을 파악했다. 여기서 <문화 활

동 여건 만족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 문화 활동 여건 만족도 상위 20

순위	지역명	평균
1	경기 과천시	4.1917
2	부산 해운대구	3.8955
3	서울 서초구	3.8422
4	서울 종로구	3.8386
5	경기 고양시	3.8368
6	서울 송파구	3.807
7	전북 고창군	3.7101
8	서울 양천구	3.6785
9	대구 중구	3.6766
10	서울 강남구	3.6507
11	서울 노원구	3.64
12	울산 동구	3.613
13	경기 성남시	3.5891
14	서울 광진구	3.5862

15	서울 중구	3.5806
16	서울 강동구	3.5617
17	충북 단양군	3.5453
18	서울 성동구	3.5353
19	경기 군포시	3.5304
20	경북 김천시	3.4894

이번 결과를 보면 예술의 전당이 있는 서울 서초구와 대학로 공연장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가 상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위에 오른 과천 역시 현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여건이 잘 조성돼 있는 편이다. 주민 행복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 활동 여건 만족도 3위였던 서울 서초구가 주민 행복도에선 전체 20위를 기록했고, 12위였던 울산 동구가 주민 행복도에선 13위, 문화 활동 여건 13위인 경기 성남시가 주민 행복도에선 6위, 20위인 경북 김천시가 주민 행복도에서 5위를 기록했다.

<표 5-3> 공원 및 여가 시설 만족도 상위 20

순위	지역명	평균
----	-----	----

1	경기 과천시	4.8315
2	서울 송파구	4.2278
3	경기 안산시	3.9744
4	경북 김천시	3.9576
5	경북 경주시	3.9027
6	울산 남구	3.8893
7	인천 연수구	3.874
8	경기 고양시	3.8547
9	서울 양천구	3.8331
10	서울 광진구	3.797
11	대구 달서구	3.7791
12	제주 서귀포시	3.7664
13	경북 문경시	3.7561
14	서울 마포구	3.7514
15	전남 순천시	3.7507
16	경남 김해시	3.7198
17	서울 성동구	3.715
18	경기 성남시	3.706

19	서울 영등포구	3.7019
20	서울 강동구	3.6987

경기 과천시 는 <문화 활동 여건>과 <공원과 여가 시설>에서도 만족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문화 활동 여건 만족도에서 20위를 차지한 경북 김천시 는 공원 과 여가 시설에서 4위를 기록해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의 주민 만족도는 5위다. 공원 과 여가 시설 6위인 울산 남구는 주민 만족도에서 14위에 올라 있고, 공원 과 여가시설 18위를 기록한 경기 성남시는 문화 활동 여건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주민 만족도에는 6위에 올라 있다.

이번에는 위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전체 예산에서 문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 20위를 뽑았다. 어떤 지역에서 문화 예산 비중을 높여 문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 전체 예산 중 문화 예산 비중 상위 20

순위	지역명	평균
1	경북 경주시	15.95

2	충남 계룡시	15.43
3	강원 화천군	14.53
4	경남 창원시	13.51
5	경북 고령군	13.02
6	경남 남해군	12.98
7	경북 청송군	12.90
8	강원 영월군	12.84
9	강원 인제군	12.93
10	경북 안동시	12.76
11	경북 울릉군	11.71
12	경북 문경시	11.55
13	전남 곡성군	11.52
14	경북 영천시	11.13
15	전남 보성군	11.07
16	전남 구례군	10.99
17	충북 단양군	10.95
18	경남 통영시	10.6
19	강원 양구군	9.88

20	경기 수원시	9.77
----	--------	------

문화 예산 비중은 전반적으로 지방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문화재 보호와 관광 자원 등에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북 경주가 15.95%로 최상위에 올랐고, 충남 계룡시와 강원 화천군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화천의 경우 지역 축제가 활성화 돼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것이 산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의 경우 예산 약 31억 원인데 경제 파급효과는 약 677억원(문화관광축제 심포지엄, 2014)으로 보고되고 있다.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를 비롯해 쪽배축제, 토마토축제는 지역내 총생산액(GRDP) 7천 330억 원 가운데 10%(733억)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도에 화천산천어축제 138만 명, 쪽배 축제 11만 4천여 명, 토마토축제에 9만 2천여 명등 3개 축제를 통해 지역인구 2만 5천 명의 60배(158만6천여 명)가 넘는 관광객이 찾았다. 서울대 서베이센터 조사 주민 행복도의 경우 3.75로 평균 3.6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예산 비중 9.88로 19위인 강원 양구군의 경우 주민 만족도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친환경 농산물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자

연생태공원 및 DMZ야생동물 생태관과 생태탐방로 조성, 산양의 증식 및 복원 등에 주력했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예풍경마을과 인문학마을, 도자기마을 등을 조성 중이다. 근현대 사박물관을 개관했다. 주민들이 취미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쉼터를 준공했고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봉전망대와 문화 복지센터를 연습실로 개방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한다.

<표 5-5> 문화 활동(공연 횟수) 상위 20

순위	지역명	횟수
1	서울 종로구	24537
2	서울 중구	5112
3	서울 서초구	2576
4	부산 남구	2372
5	서울 강남구	1828
6	서울 마포구	1511
7	인천 중구	953
8	제주 제주시	942
9	경기 고양시	933

10	서울 구로구	841
11	경기 성남시	789
12	전북 전주시	755
13	서울 송파구	720
14	경기 수원시	716
15	대전 서구	680
16	충북 청주시	652
17	서울 용산구	630
18	서울 광진구	620
19	인천 남동구	556
20	부산 중구	549

‘문화 활동’은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다. 문예연감 2013년 자료를 이용해 국악, 양악, 무용, 연극의 지역별 연도별 공연을 일일이 날짜별로 횟수를 집계한 표다. 문예 연감에는 실연 장소와 날짜만 표기돼 있어서 이를 지역으로 다시 계산해 코딩한 결과다.

이를 보면 주로 상위권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는 결과를 알 수

있다. 공연장이 밀집해 있는 서울 종로구는 다른 지역 223개 지역 모든 공연 횟수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았다. 공연 시설이 많은 중구 역시 그 다음을 기록했고, ‘예술의 전당’이 있는 서울 서초구와 ‘광림 아트홀’ 등 여러 중소형 아트센터가 있는 강남구, 각 지역 문화센터가 활성화된 마포구, 구로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조사된 224개 시도자치구에서 2013년 연간 공연 횟수가 한번도 없던 곳이 32곳으로 집계됐다. 지역 문화 예산 비중이 크게 높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는데, 서울의 경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공연시설이 다수 들어서면서 기초 시설 예산이 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이후 서울과 지방의 공연 횟수에 대한 증감 추이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문화향수실태조사(2009) 기준으로 보면 공연장 인프라의 경우 공연시설의 50.6%(서울 3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단체의 60.9%가 수도권에 위치(서울은 37.0%), 공연건수 평균 10건, 공연일수 평균 31.1일, 공연횟수 평균 38.5회, 평균 관객수 11,098명(총 27,078,437명)이었다.

또 문예연감으로 확인한 서울과 지방의 예술행사 수는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서울이 지방을 앞지르고 있는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연도별 서울·지방 총 예술행사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7445	7575	8410	9233	11430	11232	10812	12730
지방	9604	9694	9308	11375	9633	10940	10726	12274

<표 7> 연도별 서울·지방 총 예술행사 비율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43.7	43.9	47.5	44.8	54.3	50.7	50.2	50.9
지방	56.3	56.1	52.5	55.2	45.7	49.3	49.8	49.1

제 3장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삶의 질 영향 요인

문화예산 및 문화 활동과 주민 행복 간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함에 있어 행복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영향을 미친다. 행복은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개념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며 분리해서 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삶의 질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문화예산 및 문화 활동과 행복 간 관계를 연구한 기존연구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한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여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 환경, 안전 등의 삶의 영역에서의 주관적 만족감, 사회자본 및 정책·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적 발전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행복 간 관계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 이라고 불리는 상대적 효용이론이 등장하면서 소득과 행복 간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공존하였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증가하는 소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Easterlin, 1974). 또한, 현대사회가 되면서 시민들의 가치관이 변화

함에 따라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Rodriguez-Pose and von Berlepsch (2014)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때 사회자본이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Tsui (2014)는 대만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행복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김병섭(2015)은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주거영역 삶의 질 수준이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제시했다.

제 2절 문화 예산, 문화 활동과 행복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화예산 및 문화 활동과 행복 간 관계를 논의한 기존연구들은 대체로 문화 향유가 커질수록 행복을 증가시키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문화 향유와 행복 간의 관계에 관해 연구한 기존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가 높아질수록, 돈보다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문화예술 향유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이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O' Brien, 2010; Fujiwara, 2013, Tepper 외 2014; 양현미, 2007; 남은영 외, 2012; 양혜원, 2012).

O' Brien (2010)은 영국의 CASE 프로그램(the Culture & Sport Evidence Program)을 통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추정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영화 혹은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이 삶의 질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가 실질적으로 연간 가구당 9000 파운드만큼의 소득 보상(income compensation)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Fujiwara (2013)는 영국의 문화매체부가 수행하는 Taking Part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박물관 관람,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활동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 관람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epper 외 (2014)는 미국의 3개 nation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술 활동과 삶의 질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예술 활동을 관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술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창작 활동을 할 경우 삶의 질이 제고된다는 것을 제시하여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Matarasso(1997)는 도시재생 성격의 다양한 문화현장사업에서 나온 연구결과들을 검토하면서 예술이 사회적 통합, 공동체 역량강화, 지역정체성과 같이 사회자본의 형 기여함을 제시했다(서우석, 2015 재인용).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해

고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타인에 대한 관용을 증대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사람들의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고유한 즐거움의 원천을 제공해준다고 조사됐다. 런던의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3%의 성인과 80%의 아동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는 영국의 신노동당이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문화정책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양현미(2007)는 물질적 가치보다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더 행복하며,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밝혀냈다. 남은영 외(2012)는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참여, 사회관계 활동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양혜원(2012)은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참여가 문화예술 공연 관람 횟수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문화예술 감수성의 증가를 통해 국민의 행복, 건강, 신뢰, 창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밝혀낸 바 있으며, 국민들에게 고급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받고자 하는 질적 욕구보다는 양적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나 문화예술에 대한 더 많은 향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양혜원(2013)의 연구는 문화재정과 삶의 질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양혜원(2013)은 1990년 ~ 2005년 동안의 OECD 22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을 독립변수로 하여 문화재정이 증가할 경우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년 전의 문화재정의 비율이 현재의 삶의 만족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람, 전인수(2017)는 소득 및 문화적 여건과 행복의 관계, 소득수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여건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행복감이 더 크지만, 중소득-고소득의 행복감 차이보다 저소득-중소득의 행복감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거주지 주변의 문화환경 만족도와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예술 비중 등 일부 문화적 여건이 소득보다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문화적 여건 4가지 변수(축제참여 경험, 거주지 주변 문화 환경 만족도,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의 비중, 연간 문화관람 횟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났는데 4가지 변수 중 저소득층은 문화 관람과 행복감에 유의관계가 없었고, 고소득층은 축제와 행복감에 유의관계가 없었다.

Sheldon & Lyubomirsky(2006)는 4주간의 실제 관찰을 통한 ‘지속가능한 행복 모델’을 개발했다. 장기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요인보다는 행복 증진을 위한 개인의 의도적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의 의도적 활동은 문화적 여건이나 여가 활동 같은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영빈·정창무(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졌을 때(1인당 GDP 2만 달러 돌파 전후, 2006년 대비 2012년) 사회기반시설 중 문화시설(도시공원, 문화시설, 도서관, 체육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주변의 문화여가 시설을 통한 여가생활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변수로 작동함을 시사한다.(정보람, 전인수 2017 재인용)

<표 8> 선행연구 검토

구분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결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Rodriguez-Pose and von Berlepsch	유럽	사회자본이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연구	(2014)		
	Tsui (2014)	대만	사회경제적 지위와 기혼이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병섭 (2015)	한국 지방 자치 단체	지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침. 주거영역 삶의 질 수준과 지방서비스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
	이갑숙·임왕규 (2012)	한국	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생산적 여가활동은 생활만족도 증진과 고독감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소비적 여가활동은 생활만족도 증진에 작은 영향을 미침
문화 향유 혹은 문화재정과 행복 간	O' Brien (2010)	영국	일주일에 한번 이상 영화나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침
	Fujiwara (2013)	영국	박물관 관람,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활동이

관계에 관한 연구			행복에 정(+) ^{의 영향을 미침} 특히 문화예술 관람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Tepper 외 (2014)	미국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창작 활동이 삶의 질에 정(+) ^{의 영향을 미침}
	양현미 (2007)	-	물질적 가치보다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더 행복하며,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함
	김경식 · 이루지 (2011)	한국	여가 만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시간과 비용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여가 빈도는 반비례
	남은영 외 (2012)	한국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참여, 사회관계 활동이 행복에 정(+) ^{의 영향}
	서우석 (2015)	한국	문화여가활동은 저소득층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 행복 수준 향

			상에 긍정적 영향
양혜원 (2012)	한국		문화 복지 정책에 대한 참여가 문화예술 공연 관람 횟수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 문화예술 감수성의 증가를 통해 국민의 행복 건강 신뢰 창의성 증가
양혜원 (2013)	OEC D 22개 국가		2년 전의 문화재정 비율이 현재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정보람 · 전인수 (2017)	한국		소득은 저소득층에게 행복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수준보다 거주지 주변의 문화 환경에 만족하고 일상 생활에서 문화예술의 비중이 높을 때 행복감이 더 높아짐
Joshua Guetzkow	기존 연구		문화(예술)가 대인관계의 구축 및 사회적 자본의 형성, 집단적

	(2002)	분석	정체성, 범죄 감소 및 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 미침
	Sheldon · Lyubomirsky (2006)	미국	4주 간의 실제 실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행복 모델’ 제안. 문화적 여건이나 여가 활동이 장기적으로 행복 증진에 중요
	F.Matarasso (1997)	영국	문화예술 활동이 사람들의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고유한 즐거움의 원천을 제공해 주관적 삶의 질 높여

제 3절 본 연구의 방향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삶의 질 또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요소들 중 문화 향유 및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산과 문화 활동을 모두 고려하여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기존연구들은 주로 문화 향유와 삶의 질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문화재정과 삶의 질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양혜원(2013)의 연구는 OECD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 행복에 문화예산과 문화 활동 모두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였으며,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문화예산과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 중 어느 요인이 주민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문화 향유와 행복 간 관계 혹은 문화재정과 행복 간 관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한 변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문화예산과 문화 활동 모두를 고려하여 이들 변수와 주민 행복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220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산과 문화 활동 중 어떤 것이 주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4장 연구설계

제 1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1. 연구가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서비스와 각종 문화 행사 등 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과거 유산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도시 설계에 문화정책의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균형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문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융성’은 국가의 가치가 됐고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지역희망 HOP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4년에는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육성을 국정과제 삼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됐다.

문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문화 예산 비중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정부재정에서 문화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 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공연예술실태조사, 2016).

그렇다면 실제 각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예산을 늘릴 때 실제 지역 주민의 행복도도 향상이 되는지, 문화예산 비중과 주민 행복은 어떤 유의미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질적인 행복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다. 문화예산이 증가하면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확충되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양적·질적인 확대가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문화 향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산의 증가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행복이 문화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각종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는 공연 예술(연극·뮤지컬 등)의 경우 장소·시간이 마련돼야 시행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축제와 함께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에 특히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대체로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활동은 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공연 일정이 밀집돼 있고 지방 순회 공연 등은 자주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 과연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문화예산과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 중 어느 요소가 주민 행복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문화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주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공연횟수가 많을수록 주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분석모형

본 연구는 문화예산 및 문화활동 중 어느 요인이 주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happiness = \beta_0 + \beta_1 culbudget + \beta_2 culactivity + \beta_3 X + \epsilon$$

*happiness*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주민 행복이다. *culbudget*은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독립변수인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중이며, *culactivity*는 또 다른 독립변수인 문화 활동이다. *X*는 통제변수의 벡터로서 재정자립도, 지방소득세, 고령인구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수 비율,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를 포함한다. ϵ 는 오차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이다. 즉 “1=전혀 행복하지 않음, 2=행복하지 않은 편, 3=보통, 4=행복한 편, 5=매우 행복”로 5점에 가까워질수록 행복이 커짐을 의미하는 순서화된 자료이다. 이 경우에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기로 한다.

제 2절 변수 선정 및 자료

1. 종속변수: 주민 행복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민 행복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

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서베이를 통해 수집한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행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2013년에 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행복에 관해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즉, “1=전혀 행복하지 않음, 2=행복하지 않은 편, 3=보통, 4=행복한 편, 5=매우 행복”의 5점 척도를 바탕으로 측정한다.

해당 조사는 2013년 1월 29일 ~ 2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14:00 ~ 18:00시까지는 휴대전화 RDD에 의해, 저녁 18:00 ~ 21:00까지는 가구 유선전화 RDD에 의해 조사를 수행했다. 목표 모집단은 제주도와 전국 8개도의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이며, 총 목표 표본 수는 10,450명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추출틀(sampling frame) 방식은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RDD Dual Frame의 전화조사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추출방식은 지역, 성, 연령별로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문화예산 비중 및 문화 활동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부문의 문화 분야에 대한 일정한 투자가 이루어져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인 문화예산과 민간부문에 의한 문화활동 두가지 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양혜원(2013)의 연구에서는 문화재정을 측정하기 위해 총재정규모 대비 문화재정규모 비중을 사용하였으며, t기 뿐 아니라 (t-1)기, (t-2)기를 모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문화 및 관광의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문화예산이 각 지역의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독립변수로 한 이유는 전체 예산 규모가 문화예산과 같이 증가할 경우 문화예산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며, 문화 분야가 해당 지역의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활동은 국악+무용+양악+연극 공연 횟수로 측정한다.

국가 문화 예산은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문화 예산 출처는 재정고를 택했다. 문화 활동은 문예연감에서 각 공연 횟수를 기간별 지역별로 일일이 계산했다. 문예연감에 기록된 각 공연 횟수는 공연이 실시된 장소와 날짜로만 적시돼 있어 그 장소의 지역주소를 다

시 찾아 이를 일일이 수집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통제변수로 재정자립도, 지방소득세, 고령인구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수 비율,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를 선정하였다.

(1) 재정자립도

먼저,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경우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어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일 경우 자체사업을 자율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주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허만형(2014)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재정자립도의 출처는 지방 예산 결산 등을 공시하는 재정고이다.

(2)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소득 수준 대리지표로 지방소득세를 이용했다. 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문화를 향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대체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보람 외(2017)에 따르면,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행복감이 더 크지만, 중소득-고소득의 행복감 차이보다 저소득-중소득의 행복감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Dolan(2011)에서 보면 많은 행복경제학에서 모든 상황이 똑같다면 더 많은 소득이, 혹은 GDP가 우리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GDP는 행복의 대리인, 즉 행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 Ball & Chernova(2008)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 제시된 이후, 절대적인 소득에서 상대적인 소득, 다시 말해 불평등의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김병섭 외, 2015 재인용).

원래는 주민세소득세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주민

세소득세율이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로 바뀌어 지방소득세를 통제 변수로 택했다. 또한, 더 정확하게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나, 지방소득세 통계에서 이를 따로 구분하여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전체적인 지방소득세를 사용했다. 지방소득세의 출처는 행정자치부의 2013년 지방세통계 연감이다.

(3)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비율은 전체주민등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기력쇠퇴 및 건강악화, 경제수준의 저하, 소외감 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명숙, 2007). 따라서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주민 행복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비율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였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

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선정이 될 경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권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이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권자 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소득이 낮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의 출처는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이다.

(5)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마지막으로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를 통제변수로 고려했다. 일반적으로 복지는 주민 행복에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는 바, 복지가 발달할 경우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연구결과도 존재하여 복지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Bjornskov 외, 2007). 허만형(2014)은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우울감 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에 대한 대리변수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를 사용하며,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가 증가할수록 주민 행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였다.

〈표 9〉 변수의 측정지표 및 출처

구분	변수명	측정지표(단위)	출처
종속 변수	주민 행복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에서의 설문문항 (1=전혀 행복하지 않음 2=행복하지 않은 편 3=보통 4=행복한 편 5=매우 행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
독립 변수	문화예산 비중	(문화관광총액/지방자치단체예산) ×100 (단위: %)	재정고
	문화활동	국악+무용+양악+연극 공연 횟수 (단위: 횟수)	문예연감
통제 변수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총세입)×100 (단위: %)	e나라지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단위: 천원)	2013년도

			지방세통계연 감행정자치부
고령인구 비율	$(65\text{세 이상인구} / \text{전체인구}) \times 100$ (단위: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국민기초생활 보장 일반수급자 수 비율	$(\text{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수} / \text{전체인구}) \times 100$ (단위: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사회복지시설수/인구 십만명 (단위: 십만명당 개수)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제 5장 문화예산, 문화 활동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제 1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문화 활동, 문화예산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먼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결과를 살펴보고, 산포도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행복의 평균치는 5점 만점에 3.66으로 보통보다는 행복한 편이다. 문화 예산은 예산 비중으로 따졌을 때 최소값이 0.9, 최대 값은 15.9로 중간 값은 5.7로 조사됐다. 문화 활동(공연 횟수)의 평균치는 281였다. 문화 활동의 최소 값은 0이었는데 최대값은 24537로 편차가 큰 편이었다.

<표 10> 기초통계분석결과

변수	관측 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민 행복도	223	3.6522	0.2738	0	5
문화예산비중	223	5.7331	3.0823	0.8811	15.9469
문화 활동	223	281.713	1697.256	0	24537
재정자립도	223	26.5560	14.8220	7.3	75.9

지방소득세	223	4.38e+07	8.98e+07	534506	8.04e+08
고령인구비율	222	17.25018	7.5982	5.86	23.62
기초생활일반수 급자비율	220	3.2453	1.4549	5.86	34.62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220	16.7616	10.6414	1.12	59.94

제 2절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보통이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로 순서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OLS를 이용할 경우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은 2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 예산과 문화 활동이 주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은 앞에서 논의했던 모든 통제변수를 다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2 ~ 모형6은 각각의 통제변수를

누락시켜 문화예산과 문화활동 회귀계수의 민감도(sensitivity)를 보고자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양수이면 이 변수는 로짓에 대해 양(+)의 효과를 보이며 승산비도 양수가 되고 승산에 대한 효과는 양(+)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음수이면 이 변수는 로짓에 대해 음(-)의 효과를 보이며 승산비도 1보다 작아지며 승산에 대한 효과는 음(-)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만약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0이라면 이 변수는 로짓에 대해 무효과를 보이며 승산비도 1이 되고 승산에 대한 효과는 무효과라고 본다.

분석결과를 보면, 문화예산은 모든 모형에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 활동은 10% 유의수준에서조차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 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주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1의 분석결과를 보면, 문화예산에 대한 회귀계수는 0.11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1단위 증가할 때 승산비는 1.116배만큼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1. 문화 예산과 문화 활동의 유의미성 여부

이러한 결과는 OECD 22 개 국가를 바탕으로 문화 재정 비율 확대가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양해원(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동안 암묵적 가정으로만 존재하던 문화재정 지출의 확대가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참여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며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문화 활동(공연 횟수)이 많을수록 주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화 활동이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문화 향유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된 선행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문화 활동이 실질적인 문화 향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1> 문화예산, 문화 활동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결과

종속변수: 주민 행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 6
문화예산비 중	0.1053** (0.0464)	0.1021** (0.0460)	0.1098** (0.0453)	0.0986** (0.0440)	0.105** (0.0463)	0.1037** (0.0460)
문화 활동	-0.00002 (0.00006)	-0.00002 (0.00006)	-0.00002 (0.00006)	-0.00002 (0.00006)	-0.00002 (0.00006)	-0.00002 (0.00006)
재정자립도	0.0127 (0.0159)	0.0140 (0.0158)	0.0163 (0.0139)	0.0148 (0.0152)	0.0118 (0.0136)	
지방소득세	-2.08e-10 (1.75e-10)	-1.33e-10 (1.74e-09)	-3.15e-10 (1.74e-09)	-2.89e-10 (1.73e-09)		5.20e-10 (1.48e-09)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0.0124 (0.0278)	-0.0182 (0.0260)	-0.0171 (0.0259)		-0.0127 (0.0276)	-0.0189 (0.0267)
국민기초생 활보장 일반 수급자 비율	-0.0573 (0.1348)	-0.0469 (0.1335)		-0.0814 (0.1237)	-0.0595 (0.1334)	-0.1101 (0.1177)

인 구						
십 만 명 당	-0.0088		-0.0080	-0.0112	-0.0087	-0.0104
사회복지시	(0.0148)		(0.0147)	(0.0134)	(0.0149)	(0.0148)
설수						
관측치	220	220	220	220	220	220
모형적합도 (전체 변수 포함)	<p style="text-align: right;">Wald (7) =11.82</p> <p style="text-align: right;">prob > χ^2 = 0.1067</p>					

주: 1) * p<0.10, ** p<0.05, *** p<0.01

2)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통제 변수 통계 유의미성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지방소득세, 고령인구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비율,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호는 양(+)으로 나타나 예상한 기대부호와는 일치한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형6을 제외하고는 부호가 모두 음(-)이며,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음을 나

타내는데, 이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지방소득세가 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행복감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해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국민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Di Tella et al, 2003; 이양호 외, 2013, 재인용). 소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이와 같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삶의 만족감이 소득수준에 반응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배경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기력쇠퇴 및 건강악화, 경제수준의 저하, 소외감 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정명숙, 2007), 고령인구 비율 부호는 기대와 일치하게 음(-)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문화가 노령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년기에 행복을 증진시키는 다른 여러 요인이 개발되고 문화 역시 그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서우석(2015)은 문화여가활동과 사회자본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비교령자와 고령자를 비교했는데, 문화여가활동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계수의 증가량으로 비교해볼 때 고령자의 경우 0.052로 비교령자의

0.029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여가활동이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령자 저소득층 집단에서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권자 수 비율 역시 행복 증진에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부호는 음(-)으로 나타나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기대와는 달리 부호가 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Bjornskov 외(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호이다. 특히 강은택 외(2015)의 연구를 보면 같은 복지 시설이라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이영빈·정창무(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문화기반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공급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기반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기반시설 수혜자가 자신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 3절 로지스틱스 회귀값과 승산비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해서 분석한 모형1의 변수들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값과, 이에 대응되는 승산비 값을 <표 12>에 정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과 같이 회귀계수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산비를 통해 해석해야 한다. 각 독립변수의 승산비는 각 독립변수의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지수변환하여 계산한 $\exp(\beta)$ 값이다. 선형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회귀계수%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승산비가 $\exp(\beta)$ 배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표 12>는 로지스틱 회귀계수 값과 이에 대응되는 승산비(odds ratio) 값을 모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이다.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1의 경우,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인 문화예산 비중의 승산비는 1.12이며, 문화 활동의 승산비는 0.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 ~ 모형6의 경우에도 문화예산 비중의 승산비가 1.10~1.12로 모형1과 유사했고, 문화활동의 승산비는 모형1과 마찬가지로 모두 0.99로 나타났다. 문화예산 비중의 경우 양(+의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며, 문화 활동은 거의 무(無)효과에 가까운 음(-)의 효과이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통제변수들은 모든 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승산비는 모든 모형에서 1.01 혹은 1.02로 나타났으며, 지방소득세의 승산비는 모든 모형에서 1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승산비는 0.98 혹은

0.99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비율 승산비는 모형에 따라서 0.90~0.95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승산비는 모든 모형에서 0.99를 보인다.

<표 12-1> 모형 1~3의 회귀계수와 이에 대응되는 승산비 값

종속변수: 주민 행복	모형1		모형2		모형3	
	β	승 산 비	β	승 산 비	β	승 산 비
문화예산비중	0.105** (0.046)	1.12	0.102** (0.046)	1.11	0.110** (0.045)	1.12
문화 활동	-0.00002 (0.0001)	0.99	-0.00002 (0.0001)	0.99	-0.00002 (0.0001)	0.99
재정자립도	0.013 (0.016)	1.01	0.014 (0.016)	1.01	0.016 (0.014)	1.02
지방소득세	-2.08e-10 (1.75e-10)	1	-1.33e-10 (1.74e-09)	1	-3.15e-10 (1.74e-09)	1
65세 이상	-0.012	0.99	-0.018	0.98	-0.017	0.98

고령인구 비율	(0.028)		(0.026)		(0.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비율	-0.057 (0.135)	0.94	-0.047 (0.134)	0.95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0.009 (0.015)	0.99			-0.008 (0.015)	0.99

<표 12-1> 모형 4-6의 회귀계수와 이에 대응되는 승산비 값

종속변수: 주민 행복	모형4		모형5		모형 6	
	β	승 산 비	β	승산 비	β	승 산 비
문화예산비중	0.099** (0.044)	1.10	0.105** (0.046)	1.11	0.104** (0.046)	1.11
문화 활동	-0.00002 (0.0001)	0.99	-0.0000 2 (0.0001)	0.99	-0.00002 (0.00006)	0.99
재정자립도	0.015 (0.015)	1.02	0.012 (0.014)	1.01		

지방소득세	-2.89e-10 (1.73e-09)	1			5.20e-10 (1.48e-09)	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0.013 (0.028)	0.99	-0.019 (0.027)	0.98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비율	-0.081 (0.124)	0.92	-0.060 (0.133)	0.94	-0.110 (0.118)	0.90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0.011 (0.013)	0.99	-0.009 (0.015)	0.99	-0.010 (0.015)	0.99

제 4절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책적 함의

본 논문에서는 문화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주민 행복도에 양(+)의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입증했다. 이는 문화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문화 재정을 늘리는 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문화 복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화 정책을 입안할 때 문화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주민의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얘기다.

1991년 정부예산 대비 문화부의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0.4%에 그친 데 비해 2012년 기준 0.7%로 증가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한 총계 재정 규모는 정부 재정의 약 1.3%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정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또는 삶의 질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윤강재·김계연, 2010)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재정을 더욱 큰 폭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동욱(2011)은 중앙정부 문화예산이 모든 장르의 공연예술과 미술전시회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이 우리나라문화예술 발전의 큰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실효성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화 재정 투입을 증가하는 것이 문화 정책성과를 향상 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화 활동(공연 횟수)은 대체로 민간 주도적인 예술 활동이다. 연극, 뮤지컬, 무용 등 각 지역의 자생적인 예술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연 횟수가 많거나 적음에 상관없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이는 공연 횟수가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향유가 주민 행복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당수 선행 연구 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윤소영(2013)은 영국의 센트럴 세실(Central and Cecil) 주거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례(National Forum for Arts in Health, www.cultureandwellbeing.org.uk) 예를 들어 예술에 노출된 고령층 삶의 만족도가 증진됐다고 적시했다. 센트럴 세실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양한 내용의 예술과 문화관련 활동 참여(춤, 노래, 공예활동 참가 등) 결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됐다. 마을 단위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 단위로 좁힌 것이긴 하지만 마을 전체로 확장시켜 생각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 김동욱(2011)은 공연예술 소비는 장르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높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연예술의 접촉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 중 교육수준이 공연예술의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문화 활동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이유를 ‘접근성’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지역 내에서 공연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정보 부족일 수도 있고, 가격적인 문제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중 교통 등의 부족으로 교통이 불편해 현장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문화 복지의 중요 요인인 문화 소외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 활동을 민간 부문의 행위로 볼 때 정부의 개입이 있

어야 문화 예술 증진에 유효하다는 선행 연구에 대한 설명력도 가질 수 있다. 문화 예술은 대표적인 ‘비용 질병’ 장르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화 예산을 집행할 때 문화정책은 단순히 예술작품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시장에서 예술 공급자가 작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때 비로소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예술분야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진다 해도 결국은 향유할 수 있는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번 결과에서 문화 활동(공연 횟수)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문화 활동이 다양하게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인 향유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문화 향유가 높으면 삶의 질이 늘어날 것이라는 다양한 선행 연구를 보아도 그렇다. 공연 예술은 실제 향유하기에 다양한 요인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다. 공연은 일부 거리 공연이나 축제를 제외하고는 수요자가 행위자에게 직접 가야 볼 수 있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 수요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연 집약적인 공연 특성화 지역, 예를 들어 대학로가 들어선 서울 종로구의 경우 공연 횟수는 전국 다른 지역을 합쳐 놓은 것보다 더 많고 ‘문화 및 여건 만족도’ 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 행복도를 높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로의 경우 그 상징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 사람들의 접근과 유입이 활발한 편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 향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문화자본이나 경제자본도 가지지 못한 소외계층은 고급 공연예술에 대해 스스로를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김주호(2004)는 경험이나 교육으로 축적되어야 하는 기호가 개발되지 못하며 가격부담은 대중적 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대체재의 선택을 강요할 것이며 따라서 고급 공연예술 상품의 고가전략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허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소득 못지않게 공연예술의 소비 또한 계층적으로 양극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의 분권화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지역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상황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재단의 확실한 설립 및 운영 근거법이 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

<p>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p> <p>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p>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문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다양한
합의를 줄 수 있다. 같은 예산으로 문화 예술에 투자할 때 문화 진
흥이나 문화 향수권 신장이냐를 두고 논의가 되면서 문화 향수권의
신장으로 정책적인 주안점이 이동하는 것은 이러한 양극화의 심각
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급이든 대중적이든 공연예술은 시장실패의 원죄를 지닌다. 상
업적인 경쟁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급예술이 대중예술에 비해 취
약한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고급예술의 독점적 향유라는 불합리한 상황
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외계층이 고급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의 방식을 달리하거나 예술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향유능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문화정책에 반영되고 또한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향유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지원에 있어서는 문화바우처 제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 6장 결론 및 정책적 논의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문화예산과 민간 부분에 의한 문화 활동 중 어느 요소가 주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문화 활동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문화예산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문화예산 비중이 증가할수록 주민 행복은 증가하는 양(+)의 효과를 도출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몇 가지 문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화 예산의 비중 확대가 실질적으로 각 시도 지자체 주민들의 행복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아 문화 복지와 문화 투자에 대한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공연 횟수로 본 문화 활동의 경우 민간 부분의 문화 실행으로 볼 수 있는데, ‘비용 질병’ 문제를 안고 있는 공연예술계를 보았을 때 민간 주도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은 급작스런 경제 발전으로 성장은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여럿 보고되고 있다.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현미(2007)에 따르면, 2006년 후반 영국 신경제재단(NEF)이 실시한 행복지구지수(Happy Planet Index)에서 한국은 하위권인 102를 기록했고,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조사한 세계행복지도(World Happiness Map)에서도 한국은 102위를 기록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올 2월 발표한 유네스코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32개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국내 주요 도시 역시 세계 무대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영컨설팅 업체 머서가 전 세계 231개 도시를 조사해 발표한 ‘2017년 세계 주요 도시 삶의 질 순위’에서 서울은 76위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73위에서 세 계단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문화를 앞세워 문화에 투자하는 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최근 서울문화재단에서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경영 전략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 예술인에 75억 원을 쏟아 부어 예술인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최근 밝힌 것도 이러한 의지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 도시’를 내세우는 지역 사회가 늘고, 문화 예산 비중을 늘리는 곳이 점차 늘고 있는 요즘이다. 문화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는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불안정한 문화 예산의 편성을 제고해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문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는 개인적인 가치 함양에도 도움을 주지만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시키는 사회적 기능도 갖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이나 문화 소외 계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기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 근거리에서 쉽게 접근하고 참여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풍성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예산은 상당수가 불안정한 기금제공이나 취약한 예

산 배정 속에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부천이나 인천, ‘아시아 문화 전당’이 들어선 광주 등 ‘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앞에서 본 영국 게이츠헤드나 일본 나오시마 같이 도시 재생 초기부터 문화를 위주로 전폭적인 문화 투자를 통해 도시의 성격을 완전히 탈바꿈 시킨 예가 있다. 초반엔 드러나지 않는 효과 때문에 많은 반대를 입었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적극적인 시도로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다. 큐리드(Currid, 2007)의 연구 역시 참고할 수 있는데 뉴욕의 사례를 통해 창의적인 예술가 집단의 형성과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라는 자원이 도시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문화 예산 비중이 늘면 행복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시설 투자나 획일적인 공급 보다는 지역 주민의 따라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해외 사례 베끼기에만 급급해 현실성이 없거나 미학적인 개념이 떨어지는 작품을 두었을 때는 ‘공공디자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도식적인 설계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 공연 횟수가 많아도 이를 향유할 수 없다면 행복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공연, 영화, 도서,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참여활동 지원)와 자치단체 축제를 연계하여 만족도 높은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공연 횟수가 전혀 없는 지역도 적지 않았다. 이것 역시 행복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공연이 있다면 다른 지역까지 가서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도 있다. 즉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질 낮은 공연을 하는 것 보다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준 있는 문화를 체험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문화 관람 프로그램은 무료 혹은 저가형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합리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문화 예술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문화 복지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 투입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었던 문화 복지정책이 실제로 의도한 결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양혜원(2012)은 문화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정책의 성과가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한 비가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하나, 문화 복지정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

가와 분석, 방법론의 개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지 않은 것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자의 특성을 파악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는 정책방향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문화적 여건이 행복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문화가 지닌 다양한 장르와 종류, 문화를 향유하는 수요자의 취향 격차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여건(시설, 관람, 참여, 활동 등)이 우수할 경우 긍정적인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문화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기 때문이다(Chan and Goldthorpe, 2007; Werck and Heyndels, 2007; Peterson and Kern, 1996; Peterson and Simkus, 1992; Bourdieu 1979).

제 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이번 연구는 문화 예산과 문화 활동, 주민 행복감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문화예산 재원과 문화 활동 유형에 따라서 개별 지역 단위로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했다는 데에 본 연구에 의의

가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역별 개발이 중요시되고, 최근 들어 ‘불평등’ 과 ‘삶의 질’ 이 화두가 되면서 불평등 요인을 개선하고 행복감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특히 의의가 있다. 예산 비중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좋아져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이는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문화 향유가 주민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여러 선행연구는 역시 분석 단위를 도시 하나이거나 혹은 16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크게 자료가 갖는 한계를 들 수 있다. 행복도를 조사한 기존 서울대학교 서베이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2013년에 결과를 맞추다 보니 시계열적으로 풍부하게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고, 횡단적인 자료를 사용한 연구 설계를 하게 됐다. 2013년도의 횡단면 자료는 230개 전국 단위의 시군구 지역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지만 문화예산이 갖는 시간적 동태성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패널분석을 이용한 고정효과모형이 시간과 공간들에 걸쳐서 잠복해 있는 소위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의 문제를 해결해 보다 편의 없는(unbiased) 추정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가 축적되는 향후 연구에서는 패널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패널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근래에 돼서야 문화예산

의 범위를 일관성을 갖고 구축하기 시작한 관계 정부기관의 문화예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꾸준히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복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문화 관련 요소를 포함한 전국적인 단위의 서베이 조사는 꾸준히 실시되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16개 시도별로 조사하는 등 기초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이 역시 데이터 베이스가 꾸준히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활동에 국악, 무용, 양악, 연극 등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기본 자료에 등장하는 공연 활동을 실제 지역별로 일일이 계산해 측정했지만 이 역시 단일 해에 그쳐 측정 도구가 단순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 활동에서 실질적인 수요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즉 티켓 등의 판매 등을 통해 실제 얼마나 지역 주민이 소비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국내에 공연 관련 통합전산망이 없기 때문에 개별 공연 외에 정확한 수요 파악은 어려운 편이다. 다양한 여가소비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문화적 여건 이외에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가환경 및 소비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로 작용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행복, 문화관련 지표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지표가 개발되고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자료 축적을 통해 패널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은택·홍석동·마강래. (2015) 「지역의 소득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3(2) : 117-130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지역사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미국 스폴스시의 경험적 증거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 243~270

고명철·최상욱.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권 4호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 95-130

김기덕. 2007.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3(2): 369-388

김동욱. (2011).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 분석. 국민대 박사논문

김병섭·강혜진·김현정. (2015).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영역 삶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3): 29-56

김병섭 외. (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김병섭. (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53(2): 97-121

김석태 외. (2002).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이 지방문화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김연진. (2011). 문화지구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은경·변병설. (2006). 도시의 충족조건: 인천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3): 441-458.

김주호.(2004). 공연예술상품의 소비자 가격. 「예술경영연구」 6.

남애량. (2015) 지역별 문화예술 재정이 문화예술 향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33.

라도삼. (2013). *문화도시의 개념과 문화도시화를 위한 서울시 전략의 반성적 고찰*. 「문화 더하기 콘텐츠」. 2.

- 라도삼. (2013). 예술시장의 기부실태와 활성화 방안. 「정책리포트」. 146.
- 민소영. (2013).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의 경험 : 광주시 시화문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 박미애. (2009).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 관련 사례연구.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 박상언. (2005). 기초 자치단체 문화 행정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문화예술논단」. 168
- 박신의. (2008). 정부 문화예술 예산의 지원 유형 분류와 간접 지원의 개념·양상. 「문화정책논총」. 20 : 36-62.
- 박윤환. (2012).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재원구조와 활동유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0(2) : 201~226
- 박종민·김서웅.(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 기준. 「아세아연구」.
-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240-270
- 서우석. (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69-297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2014) 정부의 역할과 범위 및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2014 기초분석보고서

- 소병희. (2010).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문화예술 향수 증대를 위한 정책 제언. 「문화정책논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 :106-125
- 송필석, (2008) 공연예술 관객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 신병동·백승흠(2009), 한국과 일본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혁적 비교, 「스포츠와 법」. 12(3) : 235-266.
- 양현미. (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 (2012). 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여운상. (2009). 낙후 된 작은 섬이 예술의 섬으로 나오시마. 「부산발전포럼」. 51-55
- 오양열. (2008).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연구과제」.
- 용호성. (2012). 문화 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 「문화정책논총」. 26(1) : 99-124
- 윤강재·김계연. (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59 : 86-98.
- 윤소영. (2013). 여가행복지수 기초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용중. (2002).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경모. (2011). 게이츠헤드의 도시마케팅과 발틱현대미술관. 「미술세계」, 316: 90-95.
- 이병량. (2011). 문화와 경제: 문화는 도시를 살리는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5~247
- 이병량·박윤환. (2011) 문화도시는 문화에 돈을 쓰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1) : 215-239
- 이승엽. (2002). 공연장의 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과 전망. 「한국예술경영학회」.2 : 54-67
- 이양호·권혁용. (2013). 제도와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비판적 고찰. 평화연구. 21(2) : 37-68
- 이영빈·정창무. (2013). 도시기반시설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6) : 77-88.
- 이지은·강민성·이승중.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 559-588.
- 이태중. (2005).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간 삶의 질의 비교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 (2) : 211 ~ 229
- 이호영·서우석. (2011).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

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5(1) : 91-118

임상오. (2002). 문화산업과 순수예술의 발달 . 정신문화연구. 25(4)
: 3-19

임학순. (2013)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창출 및 발전방안-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광렬. (2010).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명숙. (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0(2) : 145-169.

정보람·전인수. (2017).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 「문화정책논총」31(1): 30-51

정지범. (2011). 국민 행복 결정 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 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6.

조현성·김세훈. (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조현성·김영범·이주연. (2003). 노인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
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영출. (2014). 사회정책적 요인이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요인 분석: OECD 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8(1) : 1-22.

최종혁·이연·유영주·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문화복지실천가 대상 질적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회보」 2: 291-316

황혜진. (2010). 국가주도형 프랑스 문화정책과 시사점. 「유라시아 연구」. 341-357.

허만형. (2014).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8(3) : 231-254

허훈. (2014)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만들기의 효용에 관한 사례비교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3), 317-342

외국문헌

Ball. R, Chernova. K. (2008).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Quality-of-Life Measurement. 88(3) : 497-529

Carnwath. J. D, Brown. A. S. (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Art council England.

Deaton, A.(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Diener, E., R.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 71-75.

Diener, E., E. Suh, R. Lucas, and H. Smit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 276-302.

Diener E, Lucas R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See Kahneman et al. 213-29

Diener, E., Biswas-Diener(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2) : 119-169

Diener, E.(2007). *Happiness Accounts for Policy Use.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Dolan, P., & White, M. P. (2007). *How can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be used to inform public policy?* Perspectives in Psychological Science. 2 : 71-85.

Donnelly J. H.(2007) *Humanizing science education*. Science education. 5 : 762-784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edited by P. David and M. Reder. New York: Academic Press.

Fordyce. M. W. (1988). *A review of research on the happiness measures: A sixty second index of happiness and mental heal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4) : 355–381

Fujiwara, D. (2013). *Museums and happiness: The value of participating in museums and the arts*. the Happy Museum.

Grzeskowiak, S., Sirgy, J. M., & Widgery, R. (2003).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Predictors and outcomes*.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33 : 1–36

Helliwell, J. H, Huang, H. (2008). *How' 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J.Pol.S. 38 : 595–619

Hartog. J, Oosterbeek. H. (1998). *Health, wealth and happiness: why pursue a higher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7(3) : 245–256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 Baker E. Wayne.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1)

Jeannotte, M. Sharon. (2003). *Social Cohesion: Insights from Canadian*

Research. Ottawa: Strategic Research and Analysis Directorat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Books.

Lambiri, D. Biagi, B. & Royuela., V. (2006). *Quality of Life in the Economic and Urban Economic Litera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1) : 1-25.

Matarasso, F. (1997). *use or ornament?* Culturenet

Myers, D. G,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 10-19

Published by: Blackwell Publishing on behalf of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Mohanty, P. Mishra, S. (2014). *Corporate governance as a value driver for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India.* Corporate Governance, Vol. 14(2), 265-280.

O' Brien, D. (2010). *Measuring the value of culture: a report to*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Rodríguez-Pose, Andrés and Berlepsch, Viola. (2014) *Social capital and individual happiness in Europ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2) : 357-386.

Sandvik, E. Diener, E. Seidlitz, L.(1993) *Subjective Well-Being: The Convergence and Stability of Self-Report and Non-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61(3) : 317-342.

Seligman M. E. P,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 Psychol. 55(1) : 5-14.

Sheldon, K. M., & Lyubomirsky, S. (2006). *Achieving sustainable gains in happiness: Change your actions, not your circumstanc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 55-86.

Subramanian A, Tamayo P, Mootha VK, Mukherjee S, Ebert BL, Gillette MA *et al* (2005). *Gene set enrichment analysis: a knowledge-based approach for interpreting genome-wide expression profiles.* Proc Natl Acad Sci USA 102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Eds.). (2000). *Positive psychology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55(1).

Sheldon, M.; Lyubomirsky, Sonja. (2006) *How to increase and sustain positive emotion: The effects of expressing gratitude and visualizing best possible selv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 73-82

Sirgy, M.J., & Su, C. (2000). *Destination image, self-congruity, and travel behavior: Toward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4), 340-352.

Stock, W. A., Okun, M. A., & Benin, M. (1986).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2), 91.

Tepper, Steven J, with contributions from Blake Sisk, Ryan Johnson, Leah Vanderwerp, Genevieve Gale and Min Gao. (2014). *Artful Living: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practic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ree national surveys*. The Curb Center for Art, Enterprise, and Public Policy at Vanderbilt University.

Tsui, H. C. (2014). *What Affects Happiness: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or Expected Income?* Journal of Policy Modeling, 36: 994-1007.

Veenhoven, R.(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 33-45.

Veenhoven, R.(2005). *Apparent Quality-Of-Life in Nations: How long and happy people l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1 : 61-86.

Veenhoven, R.(2007). *Measures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s Happiness Measurable and What Do Those Measures Mean for Policy?* International OECD Conference Rome.

Victoria Reyes-García, Ricardo A. Godoy, Vincent Vadez, Isabel Ruíz-Mallén, Tomás Huanca, William R. Leonard, Thomas W. McDade, Susan Tanner, Bolivian Study Team TAPS Bolivian Study Team(2010). *The Pay-Offs to Sociability: Do solitary and social leisure relate to happiness?* Human Nature 20(4) : 431-446

Warren E. W, Kamalesh Kumar, Larry K. Michaelsen. (1993) *Cultural Diversity's Impact on Interaction Process and Performance: Comparing Homogeneous and Diverse Task Group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3) : 590-602

Werck. K, Heyndels. B, Geys. B. *The impact of central places on spatial spending patterns: evidence from Flemish local government cultural expenditures.* Market Processes and Governance from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WZB)

Abstract

Study on the Influence of Culture
that Enhance the
Happiness(Quality of life) on
Korean local community residents
: based on Culture budget
Expenditure and Cultural Activity.

Boyun Choi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which aspects between Culture budget expenditure or Cultural activity(such as musical, theatre, classic performance etc) will affects more to enhance the happiness(the Quality of life) of the local Government residents.

The dependent variable, ‘Happiness’ is based on the Survey result of the research center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the object of the Happiness of 230 local government’ s residents which held in 2014. This research provides significant contribution because 1) it lays that which side is more effective to enhance local residents’ happiness and 2) the analysis target not the supply side(government) but also the private sector(who makes the cultural activities), and it provides a future direction which is more significant to enlarge people’ s content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through an in-depth research on cultural policies based on the art and culture.

Under the question, this thesis conducts a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causality between increasing the budget expenditure, cultural activity and the happiness of the local people. The analysis exploits the local cultural budget data, 220 local resident’ s happiness of the 2014

survey(actually the survey' s result is 230 local government, but some result are omitted) and the total figures of cultural activity which held in the 220 communities. The cultural activities mean the private sector' s invest to make people happy. There are many theatre acting groups, personal performer, dancers, artists ets. It provide a lot performance in the theatre or local performing art halls of culture & Arts Centers.

The result is that Cultural budget expenditure affect directly to enhance the happiness of the local Governments' residents. So that the more putting the budget the better of the feeling of the satisfaction. This is the significant evidence that the public policy makers plan to set up the more budget to make their local people happy. It will justify to increase the Culture budget to make Cultural city to get more quality of life.

keywords : Cultural policy, local budget expenditure on arts and culture, cultural activities, effectiveness of budget expenditure, enhancing of the happiness(quality of life), survey on local Government residents on Happiness

Student Number : 2000-23015